

인간과 자연합일 사진으로 체험

신문박의 禪

사진작가 박상훈 씨

인간에게는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도 없다.

“깨달음에 이른 선사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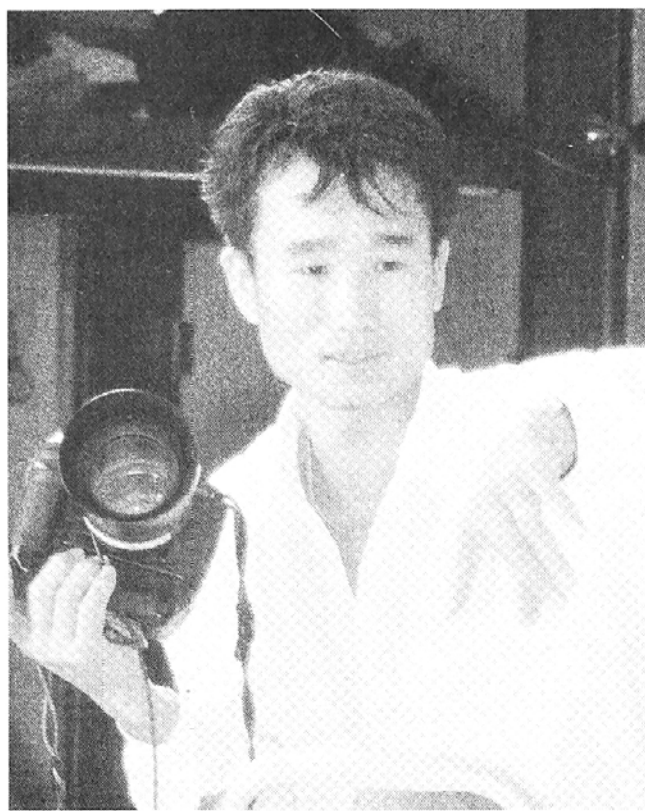
풍경사진 찍기 20년

사진계에서는 나름대로 풍경작업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넓혀온 사진작가 박상훈씨(44). 박상훈씨가 담은 산하(山阿)의 풍경들은 그 소중함의 무게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 크지 않은 눈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탁월하게 담아내는 아름다운 풍경들, 그의 풍경작품들은 그의 바라봄 자체가 광범함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저 보여지는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연과의 무언의 대화를 통해 인간

인데 이어 86년에 개최한 '새벽여행' 시리즈에서는 오늘날 그의 사진의 원형이 되는 새벽의 농촌풍경을 주제로 한 풍경작업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에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만의 작품세계와 인생철학이 담겨져 있다. 어떤 제도적 맥락 속에 있던지간에 자신의 미적 감수성과 대상에 대한 진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박씨 자신의 고유색깔을 찾는 작업은 작품속에서 '여백'이라는 공간을 통해 모든 걸가지를 벗겨버리고 가장 절실한 속살만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특한 마음의 눈으로 자연풍경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눈으로 자신 앞에 놓여진 풍경들에 대한 한량없는 경건함, 풍경들을 향해 열린 카메라라는 기계와 자신과의 일체감,



“마음속 렌즈로 세상을 볼 때 풍경삼매에 빠져요” ‘자연스러움 추구’ 작업통해 겸허·관조자세 배워

의 슬픔과 아름다움,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 사진예술이고, 선의 궁극적 경지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도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 면 앞에 섰다면 아직 마음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면 아쉬움을 느낄 뿐입니다.”

자연의 통해 '나'라는 실체를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자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박씨에게는 평생의 과제이자 화두다. 박씨에게 있어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눈 끝을 빼앗는 아름다운 풍경 하나 만나면 빼앗은 듯 작디작은 눈을 반짝이던 서투를 눌러 표현해내는 것이 곧 수행의 길이다. 박씨는 그렇게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데 20여년의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박씨는 1970년대부터 풍경사진을 제작하면서 독자적인 작품세계와 예술사적 작가로서의 이름을 쌓아왔다. 82년 그의 첫번째 개인전에서 '풍경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하면서 찍은 심상적 풍경사진을 선보

풍경을 바라보는 진지한 안목의 형성 함들이 무한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연과 화해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곧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바탕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은 인간에게 지극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예술이 아닌 거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자연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겸허함과 관조의 자세를 배우게 합니다.”

자연스러움, 이것은 박씨가 사진작업을 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자세이자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세상 모든 이들이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사물과 논리들이 갖는 모순성을 화해시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여기 저기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묵묵히 노력해 왔다. 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그의 말처럼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

는 즉 자연스러움을 통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사공과리의 눈부심같은 것으로 작품 곳곳에 널려 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풍경속으로 뛰어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풍경삼매의 청정미묘한 맛을 즐기게 한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는 그의 창작작업이 곧 인간의 정신을 맑고 깨끗한 경지로 이끌어가는 구도행인 것이다.

정상일때 변신하라

구름사내의 신행모임인 영산회에서 총무를 맡아 보고 있는 것이 신행활동의 고작이라고 말하는 박씨가 굳이 자신의 수행정도와 불교관을 풀어내지 않더라도 그의 작품 속에 내비친 그는 어느 조사당에 오롯이 앉은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를 꼭 불교라는 언설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진, 그 속에 박씨가 녹아있다.

얼마전에는 총무로써 있는 작업실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했다. 변신을

위해서다. 편안해지면 안주하기 쉽고, 노력의 경주사 사라져 버린다. 때문에 박씨는 항상 '정상일 때 변신하라'는 평소의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매진한다. 변신을 거듭할 때 마음의 눈이 가질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곧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참선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탐구해 나가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법이거든요.”

때문에 20여년동안 한국의 풍경을 보여줬던 그가 우려한 기대반으로 준비중인 98년 사진기획전은 그가 평생의 화두로 불잡고 있는 무명함 마음의 눈을 향한 가장 진실한 삶의 갈구이다.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눈끝을 빼앗는 아름다운 풍경하나 만나면 서투를 놀러는 박상훈씨의 또 하나의 새로운 작업이 어떻게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하게 한다.

도필선 기자

진언주력 마음으로 해도 되나요

문 불교수행법중에서 진언주력이 있는데 보통은 진언을 외출때 소리를 냅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면 공부 안되는지? 소리내면 주변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가르침 바랍니다.

(김동길·부산 영도구 침학동)

답 임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는 것을 흔히들 염불이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불의 참된 의미는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둘이 아님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의 그 높으신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명호를 떠올리고 상호를 관하면서 그 공덕을 생각하는 것도 염불이라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아니 계산 곳 없고, 삼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계산 때가 없으니 그대로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한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과 한마음을 믿는 것이 염불이요 부처님과 합자되 같이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이거 물리치는 것을 방학칙, 또는 놓는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석정·북제주군 구좌읍)

답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기도 할 겁니다. 또 도대체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의의도 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으니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내가 급한 지경이니 무조건 믿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놓고 맡긴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용광로에 무쇠든 잡쇠든 동탕 끓여넣는 작업과 같습니다. 방학칙이나 주인공에 놓는 것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물락 놓는 게 아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애써 결과에 무심한 척하는 것을 놓는 것이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그야말로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잘되는 것 못되는 것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 사람이 송장모양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살아있으니 쉼이 있고 먹을 것이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떼었으니 또 한발자국 떼어 놓아가지 하면서 걷는 것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원 대법상담을 듣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런데 불자들이 제불보살을 영송할때 제 가슴에는 불을 켜지도 않고 입으로만 달달 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염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염불이라면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해아지오,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마음이라는 것이 곧 참 염불이요, 그런 염불이라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지고 제불보살이 다 들읍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 기울여 하면 제불보살이 듣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해아지오 하겠지요. 또는 제가 듣기 위해서나 열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염불도 분명 아니지요.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식절차상 다같이 한다거나 조용한 곳에서 홀로 정신집중을 위해 방편상 그렇게 하는 것이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도 마음의 불을 켜 염불이어야 하지 않나고 공덕도 없습니다.

'방학칙'의 참뜻은

문 불법을 잘 모르고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보면 방학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본란을 읽다보면 스님께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놓아라, 말하라 하시는데 무엇이 놓는다는 생각을 해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또 생활하다가 곤란한 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괴로운 마음을 스스로

아니지요? 그냥 자동 아닙니까? 놓고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가 저렇가 따지지 말고 잡았든 못잡든 나를 끌고다니는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엄마를 믿듯이, 하인이 주인을 믿듯이 그렇게 믿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잘난 것만 찾으려 다니다가 못난 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지 말고요.

옛 선사들도 누구도 강조하셨듯이 그렇게 놓고가다보면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에 승천하자고, 극락가자고 지금 빌겠습니까?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즐거움이 있는 법인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인상 잔뜩 찌푸리면서 무겁게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면 그런 삶을 보람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짓고 다니다가 다음에 극락이라고 공부를 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온갖 짐 다 내려 놓고 출가분하게, 마음 편히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극락이요 천당이지요. 그게 보이는 세계 안보이는 세계를 싸잡아 활용하는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거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니 믿고 맡기는 것, 믿고 놓는 것을 가르치심이 아니겠습니까.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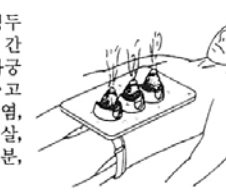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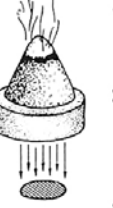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래기간 병을 낳고자 병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래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언제입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마비,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세트도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뜯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뜯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반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액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말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0분대 험자리를 동시에 뜰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원 3군대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극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구입문의처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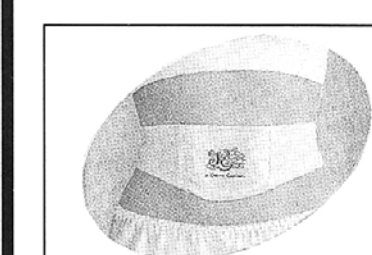
본원:부인광역시 연세구 제3동 581번지 (한신강55동5층) ●연락처:02-222-2598 ●이메일:불교이해@hanjin.com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춘천리 30-1 (농원빌딩3층) 성지리용인회 ●전화: (0335)334-9490, 39-1906 사인: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정명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주시민복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시민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23-3016 강원산양지회 (0523)74-7536 강원지회 (0551)62-0076 제주단양지회 (0443)46-3023 의정부지회 (0351)873-0532 경주지회 (6661)722-326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보세요!

-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